

물량수급,
 가격조절
 기능이
 시장에
 맞겨져야
 한다



이 영 석
 (퓨리나코리아 이사)

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. 창간 열
 뫼를 맞는 「월간 양제」에게 우선 감사와 격
 려를 보낸다.

지난 십년간 무엇이 어떻게 우리 업계는 변
 했으며 앞으로 십년간은 얼마만큼 변할것인
 가? 그동안 우리업계는 물량면에서 예측 이
 상의 크기로 성장하였으나 그 내용면에서 과
 연 얼마만큼이나 향상되었는가? 십년전과
 지금의 종축과 사료는 그 효율면에서 기대한
 만큼 개선되었는가? 양축의 경영형태나 방
 식은 좀 더 발전할수 있지않았을까? 냉철하
 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때다.

우리는 양계하시는 분들이 보다 많은 수익
 을 올리기위한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있
 도록 일진월보하는 현대기술을 양축업계에
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여기에 현존 법규나 시책에 그 근본취지와
 는 달리 오히려 제약적 요인이 되는 면이 있
 다면 과감히 개정 또는 시정 되어야 하겠다.
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
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그 기초를 다져가
 야 한다. 기업의 계열화도 물론 중요하지만
 그 이전에 기업 하나 하나가 디디고 설 자리
 가 중요한 것이다. 십년후의 일을 아무도 짐
 칠수는 없다.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만
 은 틀림없다.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 변
 화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
 는 기초와 기틀이 튼튼해야 한다. 그럼 우리
 업계의 기초는 무엇일까? 우리는 수요를 전
 제로한 시장 경제 구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
 물량 수급의 조절이나 가격 기능이 시장 기
 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. 모
 든 시책이나 생산 활동에 있어서 착상이나 기
 획, 활동, 평가등이 이 기능에 부합하고, 도
 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.

열뫼를 맞는 「월간양제」에게 이 일에 선도
 역이 될 것을 기대하며 재삼 격려를 보낸다.